

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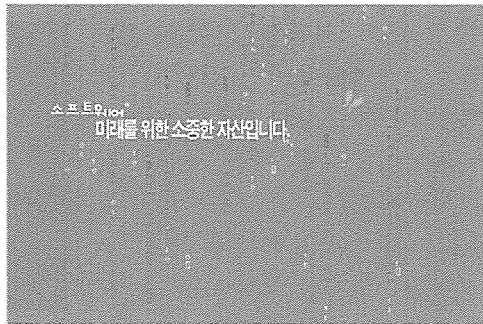
일반부

수상자 : 최진표/김승곤

시나리오

장면1 : 프로그래밍 코드가 흘러내려온다. (소프트웨어를 상징적으로 표현)

장면2 : 줌아웃되면서.. 호로그램 코드들이 캐릭터의 머릿속에 있음을 표현한다. (소프트웨어와 캐릭터를 일치와 시키기 위함)



장면3 : 캐릭터가 머릿속에 손을 집어 넣는다. 머릿속에서 소스를 꺼내어...바닥에 뿌린다. (캐릭터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창조하는 것을 표현)

장면4 : 소스를 뿌린 곳에서 나무가 자란다. (사람이 생각하는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창조성을 표현)

장면5 : 캐릭터가 하늘에 코드를 불어서 뿌린다. 뿌린곳에서 구름이 열리고...해가 뜬다. (소프트웨어의 창의성 표현)

장면6 : 캐릭터가 쉼 의자를 캐릭터 만든다.

장면7 : 캐릭터가 의자에 앉아서 쉰다. 미소를 짓는다. (창조자가 마침내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하고 만족하면서 쉰다.)

장면8 : 쉬고있는 캐릭터의 손위로 나비가 날라와 앉는다. (나비는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취약점을 상징하며...또한 분위기의 전환적 요소로 사용됨)

장면9 : 나비가 하늘로 올라가며.. 시점은 하늘로 이동한다.

장면10 : 파란 하늘에 메시지를 기술한다.

(메시지 내용 : 소프트웨어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. - 이젠 인식에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.) - 메시지를 통해 모호함을 해소하면서 강한 인상(카다르시스)을 남김